

불법약물 사용자의 약물사용 및 재사용 관련특성

이 소 영(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VI.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약물남용의 대상이 일반인과 청소년에게로 확산되면서 약물남용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불법약물의 사용은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약물 자체의 특성과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재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남용과 의존으로 연결될 위험도 적지 않다(이소영, 2002).

지난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율은 31.1%(3,139명)로 1995년 15.7%와 비교할 때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조선일보, 2002). 이는 많은 불법약물사용자들이 재범하며, 발견되지 못한 대상자들까지 감안하면 재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heroin 중독에 관해 33년간 추적조사를 한 연구결과 15년 동안 단약을 유지한 사람 중에서도 4분의 1이 재발하였다는 결과(Hser et al., 2001)는 불법약물의 재사용 위험과 가능성을 지지해준다.

불법약물사용자는 마약류관리법(2001)에 의한 범법자로서 형법(1953)에 의해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사회보호법(1980)에 의해 보호처분(보호감호, 치료감호 혹은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 중 치료감호명령을 받은 일부만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뿐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청소년 보호위원회, 1998a). 현재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에서 200여명의 직원이 50,000여명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은 제한적이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적절한 관리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마약퇴치 전략을 설정하고 범정부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사범에 대해 국가가 치료, 재활제도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처벌을 유보하고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탄력적 사범처리와 적극적인 치료보호제도로 사회복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대검찰청마약부, 2001b).

약물사용자 관리는 그 특성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평생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불법약물사용자 등록 및 관리운영체계를 설립과 함께 교육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관리와 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불법약물 사용자의 약물사용특성과 재사용 특성 및

재사용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대상자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재활에 관한 연구는 재발자의 특성(NIDA, 2001), 재발관련요인(Marlatt & Gordon, 1985; 이명하, 1999), 재발추적조사(Hser et al., 2001), 재발예방(Carroll et al., 1991; Carroll et al., 1994; 손해인, 1997)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알콜중독의 재발관련연구(성상경 등, 1993; 김정수 등, 1994; 김성재, 1996)가 있지만 그 외 약물에 대한 재발연구는 없으며, 특히 불법약물에 대한 연구는 약물남용 실태조사(청소년보호위원회, 1998b; 김소야자, 1991; 형사정책연구원, 1995; 김성이, 1996; 대검찰청, 2001a; 형사정책연구원, 2002)에 포함되어 왔으나 불법약물의 약물사용특성과 재사용 관련특성, 그리고 재사용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법약물사용자의 약물사용 및 재사용 관련특성을 조사하고 재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불법약물사용자의 약물사용 및 재사용 관련특성을 파악하여 재사용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약물사용자의 약물사용 및 재사용 관련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및 재사용 관련특성을 비교한다.

셋째, 재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불법약물 : 본 연구에서의 불법약물은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그리고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로서 대마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과 본드, 가스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의미한다.

2) 재사용 : 불법약물의 사용으로 법에 의해 징역선고나 보호처분(보호감호, 치료감호 혹은 보호관찰)을

받는 등 강제적인 힘에 의해 단약을 했다가 법의 효력이 종료하면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재사용기간 : 강제적인 단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다시 사용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전체 불법약물사용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약물 외의 요인들이 불법약물의 재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했으므로, 약물자체의 특성(drug factor)은 논외로 하였다.

II. 문헌 고찰

불법약물의 재사용은 강제적인 힘에 의해 단약(abstinence)했다가 법의 효력이 끝나면 다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자의에 의해 단약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약이 시작된 후 단약을 포기하고 약물을 다시 사용하는 약물남용에서의 재발(Carroll K., Rounsaville B, Keller, D., 1991)과는 구별된다.

약물남용은 비의학적 목적으로 기분이나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며(NIDA, 2001), 불법약물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약물로서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물남용에서 문제가 되는 약물들이 포함된다.

불법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약물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한번의 사용으로 처음부터 금단증상이나 중독증상을 포함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 또는 권태나 고통으로부터의 도피 등을 목적으로 약물을 시작해서 일단 남용에 이르면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 강박사용, 집착, 그리고 재발이나 재사용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이 약물은 강력한 즐거움을 생성하는 뇌 기능을 방해하고 뇌 대사와 활동에 장기적인 효과를 미쳐 중독, 만성적 재발질환으로 이어지고 약물에 대한 강박적인 갈망과 강박적인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 스스로는 끊을 수 없게 한다(NIDA, 2001).

이러한 약물의 특성은 헤로인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약물남용과 단약을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일생동안 중독이 지속되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으며, 단약을 시작하면 다시는 중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단약은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발은 실제 가능성을 갖는다(Hser et al., 2001)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약물남용연구소(NIDA: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에서는 약물남용은 일차적이고 진행성인 만성 질환으로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요인이 관련되며(NIDA, 2000), 재발은 일시적 재발(occasional relapse)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생동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불법약물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약물사용의 일차적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Bry et al., 1982; Newcomb & Bentler, 1987; Scheier & Newcomb, 1991b). 그러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는 생활양식이고(Newcomb & Mcgee, 1991; Mcgee & Newcomb, 1992), 가족, 또래집단, 학교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환경 내에서 형성된다고 보고한다(Newcomb, 1992). 또한 현재 약물사용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과거의 약물사용이고(Hawkins et al., 1992), 성인 약물남용이 심대 약물사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Newcomb, 1995).

반면, 약물남용에서의 재발(relapse)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며 재발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부적절한 분노, 쾌락에 대한 욕망, 지나친 위급함, 착취성, 불성실, 부정적, 이기심, 인내심부족, 낮은 자존감, 지나친 확신이나 신뢰 등이 해당된다(NIDA, 2001). Marlatt과 Gordon(1985)은 재발관련요인을 부정적 정서상태, 사회적 압력, 대인간 갈등으로 구분했고, 이명하(1999)는 부정적 정서상태, 사회적 압력, 대인관계 갈등을 고위험상황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고위험 상황과 충격, 권태, 우울, 고독, 불행, 화, 불안, 수치, 죄의식 등을 포함한 인지적 위험요인, 그리고 생활양식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약물남용에서의 재발과 구별하여 불법약물의 재사용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것이 없으나 재발이 약물중독의 일부면이고 약물남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것처럼 불법약물의 재사용은 반복되면 약물남용과 중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불법약물사용으로 정신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중이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 중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약물사용자 88명이었다.

2. 연구도구

문헌고찰을 통해 불법약물의 사용에 관한 각종 설문지를 분석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8문항, 불법약물사용 관련 15문항, 재사용 관련 9문항, 총 32문항이었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2월 1일부터 2002년 2월 25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SAS 6.12판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약물사용특성 및 재사용 관련특성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및 재사용 관련특성과 약물종류에 따른 재사용 관련특성은 Wilcoxon rank sum test로, 재사용 기간과 단약기간의 상관관계는 상관분석으로, 그리고 재사용기간과 단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0.8세이었고 성별은 남자 62명(70.5%), 여자 26명(29.5%)이었다. 교육정도는 중졸 35명(39.8%), 고졸 42명(47.7%)이었고, 직업은 무직 30명(34.1%), 자영업 17명(19.3%), 서비스직 19명(21.6%)으로 자영업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

는 사람이 36명(40.9%)으로 높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lients

Characteristics	(N=88)
	Mean±SD or N (%)
Age (years)	30.82±7.85
Gender	
Male	62 (70.5)
Female	26 (29.5)
Education	
non education	3 (3.4)
~elementary school	3 (3.4)
~middle school	35 (39.8)
~high school	42 (47.7)
college~	5 (5.7)
Marital state	
marriage	19 (21.6)
single	57 (64.8)
divorced	8 (9.1)
separated	3 (3.4)
others	1 (1.1)
Religion	
Protestant	36 (40.9)
Buddhism	20 (22.7)
Catholic	9 (10.2)
non	21 (23.9)
others	2 (2.3)
Job	
Yes	58 (65.9)
No	30 (34.1)
money (month)	203.21.±134.64

2. 대상자의 약물사용관련 특성

약물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17명으로 주로 형제 13명(81.3%)와 부모 2명(12.5%)가 해당되었다. 알콜에 대한 가족력은 18명으로 아버지가 8명(47.1%)으로 가장 많았다. 처음 약물을 시작한 나이는 11~19세가 53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20.7±6.87이었다. 지속적으로 사용한 나이는 14세~41세 33명(38.4%), 30세 이후 16명(18.8%), 바로 계속 사용한 사람 35명(40.7%)이었다. 주로 사용한 약물은 히로뽕 39명(44.3%), 흡입제 31명(35.2%), LSD, 엑스터시 등 20명(22.7%)으로 향정신성약품이 59명(67.0%)으로 가장 많았고, 한달 동안의 사용회수는 30회 이상 23명(31.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Table 2> Drug u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clients

Characteristics	(N=88)
	Mean±SD or N (%)
Drug Family history	
Yes	17 (19.3)
No	71 (80.7)
Alcohol Family history	
Yes	18 (20.7)
No	69 (79.3)
Initiate use(age)	20.71±6.87
Continuous use(age)	22.54±6.72
NUD	2.31±1.09
1	23 (26.4)
2	30 (34.5)
3	21 (24.1)
4	10 (11.5)
5	3 (3.4)
Main drugs	
Inhalants	31 (35.2)
pills	14 (15.9)
Marijuana	10 (11.4)
Philopon	39 (44.3)
cocaine, heroine	3 (3.41)
LSD, Ecstasy	20 (22.7)
Day for drug use(day/months)	18.27±14.51
<5	21 (28.4)
~(15	12 (16.3)
~(30	18 (24.4)
>30	23 (31.2)
Person who give drug first	
friend	51 (60.0)
senior or junior	26 (30.6)
others	8 (9.5)

3. 대상자의 재사용 관련 특성

단약경험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한 87명(100%)이 단약경험이 있었고 지금까지 가장 오래 단약을 한 기간은 1달 미만에서 10년까지 대상자에 따른 차이가 컸으나 12개월 이하가 39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단약기간은 23.1±24.8개월이었다. 법적인 단약기간 종료후 다시 약물을 사용하는데 걸린 시간 즉, 재사용기간은 6개월 이하가 34명(58.6%)이었다<Table 3>.

<Table 3> Drug reuse related Characteristics of clients

Characteristics	(N=88)	
	Mean±SD or N (%)	
Abstinence		
Yes	87 (100.0)	
No	0 (0.00)	
Abstinence period(months)	23.10±24.81	
Reuse period(months)	13.64±22.52	
<6	34 (58.6)	
~<12	8 (13.7)	
~<36	12 (20.5)	
>60	4 (6.8)	
Reuse reason		
temptation by friend	18 (24.3)	
family problem	3 (4.1)	
escape	10 (13.5)	
lack of attention	6 (8.1)	
craving	29 (39.2)	
others	8 (10.8)	
Reuse outcomes		
depress, loneliness	55 (100.0)	
accusation	49 (100.0)	
family problem	42 (100.0)	
disease, fatigue	37 (100.0)	
suicide attack	28 (100.0)	
Symptoms		
lesson memory	76 (100.0)	
fatigue	47 (100.0)	
pain	44 (100.0)	
thrust	38 (100.0)	
insomnia	37 (100.0)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및 재사용 관련특성

여자가 남자보다 경험한 약물수가 많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단약기간이 길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p=.0084$, $p=.01$). 가족 중 약물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 사용 경험한 약물종류수가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Table 4>.

또한 가족 중 알콜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물을 일찍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나이도 어렸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p=.02$, $p=.019$)<Table 5>.

5. 약물사용 종류에 따른 재사용 관련특성

주로 사용하는 약물이 흡입제인 대상자들과 향정신성 의약품인 대상자들의 재사용기간을 비교한 결과, 재사용기간은 흡입제 남용자들은 8.12 ± 14.92 개월이었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16.77 ± 25.44 개월로 흡입제를 남용하는 사람들의 재사용 기간이 훨씬 짧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 단약기간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6>.

<Table 4> Drug use and reuse characteristics by drug use in family members

Characteristics	Yes (N=17)		No (N=71)		Z	p
	Mean±SD or N (%)		Mean±SD or N (%)			
Age(initiate use)	19.41±5.58		21.03±7.15		-0.667	0.505
Age (continuous use)	21.82±5.60		22.72±6.99		-0.261	0.794
No. of using drugs	2.94±1.30		2.16±0.99		2.271	0.023
Day for drug use(days/months)	24.93±20.88		16.58±12.06		1.648	0.099
Abstinence period	23.33±25.89		23.05±24.77		-1.193	0.905
Reuse period	16.09±27.79		13.06±21.43		0.688	0.492

<Table 5> Drug use and reuse characteristics by alcohol use in family members

Characteristics	Yes (N=17)		No (N=71)		Z	p
	Mean±SD or N (%)		Mean±SD or N (%)			
Age(initiate use)	17.82±5.21		21.19±6.86		-2.278	0.023
Age(continuous use)	19.41±5.03		23.32±6.89		-2.343	0.019
No. of using drugs	2.56±1.25		2.26±1.05		0.844	0.398
Day for drug use(days/months)	16.07±11.13		18.83±15.29		-0.547	0.584
Abstinence period	26.40±19.89		22.33±25.90		1.451	0.147
Reuse period	14.00±16.77		13.52±24.24		0.530	0.596

<Table 6> Reuse period and abstinence period of drug type

Characteristics	Inhalants(N=23) Mean±SD or N (%)	Psychotic Drugs(N=42) Mean±SD or N (%)	Z	p
Reuse period(months)	8.12±14.92	16.77±25.44	-2.03	0.043
Abstinence period(months)	26.70±28.85	21.61±24.12	0.813	0.416

6. 약물사용 특성과 재사용 관련특성 간의 상관관계

재사용기간은 단약기간($r=0.662, p=.0001$)과 연령($r=0.059, p=.0001$)간에 정상관 관계가 있었고, 단약기간은 연령($r=0.448, p=.0001$)과 재발결과 경험수($r=0.387, p=.0008$)와 정상관 관계에 있었다 <Table 7>.

7. 재사용 기간과 단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일반적 특성과 약물사용특성 및 재사용 관련특성들이 단약기간과 재사용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상태, 직업, 건강상태, 가족의 약물사용, 약물종류, 중독증상 경험, 단약경험, 단약기간 등이다.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단약기간을 통제된 상태에서 흡입제를 주로 복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사용기간이 10.07일 만큼 짧았다 <Table 8>.

반면 단약기간은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연령이 증가할 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처음 약물을 사용한 나이가 적을수록, 재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약기간이 길어지며, 본드, 가스를 주로 사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단약기간이 14.89 개월만큼 길었다 <Table 9>.

<Table 7> Correlation of drug use characteristics and drug reuse relating characteristics

	RP	AIU	AP	DDU	Age	NERO	NES	NUD
RP		0.183 ($p=.170$)	0.662 ($p=.0001$)	0.059 ($p=.684$)	0.059 ($p=.0001$)	0.241 ($p=.076$)	0.180 ($p=.176$)	
AIU								
AP		-0.130 ($p=.254$)		0.151 ($p=.224$)	0.448 ($p=.0001$)	0.387 ($p=.0008$)	0.090 ($p=.433$)	
DDU								
AGE								
NERO								
NES								
NUD						0.154 ($p=.185$)	0.309 ($p=.004$)	

RP: Reuse Period NERO: No. of experience that relapse outcomes
 AI: Age initiate use NES: No. of experience that symptom
 AP: Abstinence period NUD: No. of using drug DDU: Day for drug use(day/month)

<Table 8>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bout reuse period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D	F or T2	P
Inhalants	-10.074	4.618	4.76	0.0335
Astinance Period	0.6030	0.085	50.24	0.0001

<Table 9>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bout abstinence period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D	F or T2	P
Age	1.308	0.388	11.34	0.0015
Health Status	9.918	3.532	7.88	0.0071
Age(Initiate use)	-2.745	0.811	11.46	0.0014
Age(continuous use)	1.601	0.787	4.13	0.0474
Inhalants	14.897	5.083	8.59	0.0051
Reuse period	0.505	0.109	21.40	0.0001

V. 논 의

불법약물의 사용은 반복되면 남용과 중독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으며 약물남용에서 재발이 임시적 재발(occasional relapse)로 실제적 가능성을 갖는 것처럼 불법약물의 사용도 일생동안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약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약물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왔으나 불법약물의 약물사용특성과 재사용특성 및 재사용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불법약물사용자의 약물사용특성과 재사용 관련 특성을 확인하는 일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약물사용자의 약물사용특성과 재사용 특성을 파악하고 재사용에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87.5%가 중졸~고졸이었으나 단과대학 졸업이상도 5명(5.7%)나 되었고, 또한 58명(65.9%)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인구의 불법약물사용자가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2001년 대검찰청 마약부(2001) 통계에서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2,596명 중 1,500명(57.8%)이 직업을 갖고 있었고, 직업별 분포는 유흥업 종사자 190명(7.3%), 상업 124명(4.8%), 회사원 111명(4.3%)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약물사용 관련특성에서 약물에 대한 가족력의 경우 가족중 약물을 사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17명(19.3%)이었고 이중 81.3%가 형제 중에 약물사용자가 있었다. 또한 처음 약물을 준 사람은 친구 51명(60.0%), 선배나 후배 26명(30.6%)으로 친구나 선배와 같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 약물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가족과 친구나 선배의

영향은, 약물남용의 대표적인 영향요인이 대인관계(Kaplan, et al., 1984; 민성길, 1990; 김재희, 1995; 이윤로, 1997; 임수진, 1998; 박충선 등, 1999), 주변환경(Newcomb & Harlow, 1986; Zucker & Gomberg, 1986; Johnson & Kaplan, 1990; Labouvie, et al., 1990; Newcomb & McGee, 1991), 가족(이길홍 등, 1985; 민성길, 1990; Anderson & Henry, 1994; 박충선 등, 1999), 또래집단(Kaplan, et al., 1984; Dielman, et al., 1987; Kaplan, et al., 1988; 민성길, 1990)라는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처음 약물을 사용한 연령은 60.9%가 11 ~ 19세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십대의 약물사용이 성인의 약물사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결과(Kaplan, et al., 1984; Kaplan, et al., 1988; Newcomb, 1995)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이 주로 사용한 약물은 히로뽕 39명(44.3%), 흡입제 31명(35.2%), LSD, Ecstasy 20명(22.7%)의 순으로서 이는 지난해 마약류 사범 10,102명중 히로뽕 사범은 7,959명으로 마약류사범의 78.8%가 히로뽕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대검찰청마약부, 200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청소년에게 흔히 남용되는 흡입제가 성인의 약물남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최근 신종마약으로 부각되는 LSD와 Ecstasy의 사용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약물사용량의 경우 거의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31.2%로 가장 많았고 이틀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사람이 24.4%, 반면 5일 이하로 사용하는 사람이 28.4%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물자체가 가진 집착, 재발, 강박적 사용의 중독 특성으로 기인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대상자 특성 별 중재접근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사용 관련특성에 대해서는 대상자 88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87명 전부가 단약을 한 경험이 있었고 100%가 재사용 경험이 있었다. 이는 재발은 임시적 재발이며 심지어 15년간 단약을 유지한 사람들 중에서도 1/4이 재발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Hser et al.,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불법약물의 재사용도 실제적인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약기간은 39명(49.4%)이 12개월 미만이었으며, 재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 이하가 34명(58.6%), 하루미만인 경우도 9명(10.3%)으로써 재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재사용 경험과 단약경험은 대부분의 불법약물사용자들이 약물을 끊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단약은 쉽지 않다는 것으로서 Caroll (1991)이 단약을 시작하고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특성 및 재사용 관련 특성을 검정한 결과, 가족 중 약물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 사용경험한 약물의 종류수와 약물사용회수가 많았다. 또한 가족 중 알콜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 훨씬 일찍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족의 약물사용과 알콜 사용은 약물남용에서 가족의 영향이 크며(이길홍 등, 1985; 민성길, 1990; Anderson & Henry, 1994; 박충선 등, 1999) 약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가족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재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사용기간과 단약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단약기간을 가진 사람들 내에서는 흡입제를 주로 복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사용 기간이 10.07만큼 짧았다. 이는 흡입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강제적인 단약 이후 더 빨리 재사용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단약기간이 길면 재사용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속이나 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을 통한 강제적인 단약기간에 해당 기관에서 받은 약물교육이 대상자의 단약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불법약물사용자의 약물사용 및 재사용 관련특성을 파악하고 약물사용특성과 재사용 특성의 상관관계 및 재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정신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또는 수감 중이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 중인 불법약물사용자를 대상으로, 2002년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총 연구대상자 88명중 성별은 남자62명(70.5%)이었고 평균연령은 30.8세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19명(21.6%), 이혼, 별거를 포함한 독신이 68명(77.3%)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7.7%, 중졸이 39.8%이었고, 65.9%이 직업이 있었다.

2. 약물사용특성은, 약물에 대한 가족력의 경우 가족중 약물을 사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19.3%이었고 이중 81.3%가 형제 중에 약물사용자가 있었다. 주로 사용한 약물은 히로뽕 44.3%, 흡입제 35.2%, LSD, Ecstasy 22.7%의 순이었고, 한달 사용회수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31.2%이었고, 처음 약물을 준 사람은 친구 60.0%, 선배나 후배 30.6%로 나타났다.

3.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단약경험이 있었고 가장 오래 단약한 기간은 49.4%가 12개월 미만이었다. 강제적 단약 종료 후 재사용하는데 걸린 시간은 6개월 이하가 58.6%이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사용 특성 및 재사용 관련특성을 검정한 결과, 사용경험한 약물의 종류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p=.0084$), 단약기간은 남자는 27.32 ± 27.32 개월, 여자는 12.83 ± 12.09 개월로 남자가 단약기간이 길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p=.01$). 가족 중 약물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 사용경험한 약물의 종류수가 많았고, 가족중 알콜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 훨씬 일찍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다($p=.02$, $p=.019$).

5. 재사용기간은 단약기간($r=0.662$, $p=.0001$), 연령($r=0.059$, $p=.0001$)와, 단약기간은 연령

($r=0.448$, $p=.0001$), 재발결과 경험수($r=0.387$, $p=.0008$)와 정상관 관계에 있었다.

6. 재사용기간과 단약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약기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흡입제를 주로 복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사용 기간이 10.07만큼 짧았으며, 단약기간은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연령이 증가할 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처음 약물을 사용한 나이가 적을수록,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나이가 많을수록, 재발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약기간이 길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중 19.3%가 약물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20.7%로 적지 않은 대상자들이 약물에 대한 가족력을 갖고 있으므로 약물사용자 관리에는 가족사정과 가족을 포함한 중재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약물을 처음 시작한 연령이 60.9%가 십대에 약물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연령은 22.5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약물교육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들이 주로 사용한 약물은 히로뽕, 흡입제, LSD, Ecstasy 등의 순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약물종류에 따른 약물사용특성과 재사용 관련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약물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중재방법을 찾아 접근하는 것이 대상자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국가마약퇴치전략 2001 (2001b). 대검찰청 마약부. 교도소가 마약학교 노릇. 2002년 3월 30일. 조선일보.

김성이 (1996).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예방대책연구. 문화체육부 정책과제보고서.

김성재 (1996). 알콜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소야자 (199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체육청소년부 정책과제보고서.

김재희 (1993). 약물남용청소년의 성격특성. 연세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수, 한상익, 김광수 (1994). 주정중독의 재발에 관한 임상변인들의 영향. 신경정신의학, 33(4), 917-924.

김현수, 민병근, 이철 (1988). 약물남용청소년의 환경·역동적 분석. 중앙의대지, 13(4), 491-497.

마약류관리법 (2001). 제 58조 1항-7항.

마약류 범죄백서 (2001a).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2002). 형사정책연구원.

민성길 (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 대한간호, 29(3), 6-16.

박충선, 은종영, 정미영 (1999). 청소년 약물남용의 의식실태 및 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9(1), 127-138.

사회보호법 (1980).

성상경, 방양원, 함용. 주정중독환자들의 퇴원후 경과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5), 698-705.

손해인 (1997). 약물남용청소년의 재발예방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약물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1988a). 청소년보호위원회.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현수, 민병근 (1985). 청소년비행의 약물상관변인 분석. 한국의과학, 17(2), 130-147.

이명하 (1999). 물질남용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 (2002). 불법약물사용자의 재사용 관련요인 평가도구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윤로 (1997).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서울: 문음사.

임수진 (1998). 자서전적 면접에 의한 약물남용 청소년의 특성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도구의 개발 (1988b).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약물남용 예방상담 (1994). 청소년상담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최근 마약사범 동향과 단속대책 (1995). 형사정책연구원. 형법. 제 67조. 1953.

- Anderson, A. R., Henry, C. S. (1994).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behavior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Adolescence*, 129(114), 405-420.
- Carroll, K., Rounsaville, B., Keller, D. (1991). Relapse prevention strategies for treatment of cocaine abuse. *Am J Drug Alcohol Abuse*, 17(3), 249-265.
- Carroll, K., Rounsaville, B., Nich, C., Gordon, L., Wirtz, P., Gawin, F. (1994). One-year follow-up of psychotherapy and pharmacotherapy for cocaine dependence : delayed emergence of psychotherapy effects. *Arch Gen Psychiatry*, 51, 989-997.
- Bry, B. H., Mckeon, P., Pandina, R. (1982). Extent of drug use as a function of number of risk factors. *J Abnorm Psychol*, 91: 273-279.
- Dielman, T. E., Campanelli, P. C., Shope, J. T. (1987).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self-esteem and health locus control as correlates of adolescent substance abuse. *Health Edu Quart*, 14(2), 207-221.
- Hawkins, J. D., Catalano, R. F., Miller, J. Y. (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oblems. *Psychol Bull*, 112, 64-105.
- Hser, Y-I., Hoffman, V., Grella, C. E., Anglin, M. D. (2001). 33-Year study finds lifelong, lethal consequences of heroin addiction. *Arch Gen Psychiatry*, 16(4), 1-7.
- Johnson, R. I., Kaplan, H. B. (1990). Stability and psychological symptoms : Drug use consequences and intervening processes. *J Health Soc Behav*, 31, 277-291.
- Kaplan, H. B., Martin, S. S., Robinson, C. (1984). Pathways to adolescent drug use : Self-derogation, peer influence, weakening of social controls and early substance use. *J Health Soc Behav*, 25(9), 270-289.
- Kaplan, H. B., Johnson, R., Bailey, C. A. (1988). Explaining adolescent drug use : An elaboration strategy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iatry*, 51, 142-163.
- Labouvie, E. W., Pandina, R. J., White, H. R., Johnson, V. (1990). Risk factors of adolescent drug use : An affect-based intervention. *J Subst Abuse*, 2, 265-285.
- Marlatt, G. A., Gordon, J. R. (1985). *Relapse Preven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Mcgee, L., Newcomb, M. D. (1992). General Deviance syndrome : Expanded hierarchical evaluations at four ages from early adolescence to adulthood. *L Consult Clin Psychol*, 60: 766-776.
- Newcomb, M. D. (1992) *Substance Abuse an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 Ethical and legal issues*. *Soc Sci Med*, 35: 471-479.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00). *NIDA's Strategic Plan for 2000-2005*, NIDA Notes ,2000, 15(2).
-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01). *Therapy Manuals for Drug Addiction : An Individual Drug Counseling Approach to Treat Cocaine Addiction*.
- Newcomb, M. D. *Identifying High-Risk Youth* (1995). *Prevalence and Patterns of Adolescent Drug Abuse*. NIDA Research Monograph, 156, 7-38.
- Newcomb, M. D., Bentler, P. M. (1987). The impact of late adolescent substance use on young adult health status and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ur years. *Soc Sci Med* 24 : 71-82.
- Newcomb, M. D., Harlow, L. L. (1986). *Life events and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loss of*

- control and meaninglessness in life. *J Pers Soc Psychol*, 51, 564-577.
- Newcomb, M. D., Mcgee, L. (1991). The influence of sensation seeking on general deviance and specific problem behavior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 Pers Soc Psychol*, 61, 614-628.
- Scheier, L. M., Newcomb, M. D. (1991b). Psychosocial predictors of drug use initiation and escalation: An expansion of the multiple risk factors hypothesis using longitudinal data. *Contemp Drug Probl*, 18 : 31-73.
- Zucker, R. A., Gomberg, E.SL. (1995). Etiology of alcoholism reconsidered : Ten case for the bioopsychosocial approach. *Am Psychol* 1986; 41 : 783-793. Comment in : *NIDA Research Monograph*, 156, 7-38.

ABSTRACT

Drug use and Reuse Relating Characteristics in Illegal Drug Users

Lee, So Young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drug use and reuse relating characteristics and reuse relating factors in illegal drug users.

Subjects consisted of 88 illegal drug users. Some of them were confined in a mental hospital or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others on attending a drug abuse prevention program in Seoul Probation Institute.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 2002 to February 25, 2002, and analyzed by SAS program, version 6.12. for Wilcoxon rank sum test,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1. Drug use characteristics were as follows. 19.3% was has drug family history and 20.7% was has alcohol family history. Main drug was Phillopon 44.3%, inhalants 35.2%, LSD et al 22.7%. Drug use rate of months was everyday 31.2%, every other day 24.4%.
2. 100% has experienced abstinence and reuse. Abstinence period was less than 12 months in 49.4% and reuse period was less than 6 months in 58.6%.
3. Drug use and reuse characteristic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identified as below. Abstinence period of male was longer than that of female. Person who have drug family history experienced more drugs and person who have family alcohol history started earlier.
4. Reuse periods was correlated with abstinence periods, age. And abstinence period was correlated with age and outcome that following reuse.
5. Th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the relating factors that influence reuse period and abstinence period. At the state of controlling abstinence period, inhalants users have 10.07 days shorter reuse period than others. And abstinence period had lengthened age, bad health status, early initiate age, and long reuse period.

Key words : illegal drug use, Nurse